

투자유치 1.4兆, 2900명 고용 창출... '혁신의 실험장' 성공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비수도권 24개 규제자유특구선
투자 7300억, 일자리 1300명 ↑
정세균 총리 "규제 법령 해결 노력"

'선 허용, 후 규제'를 표방한 규제샌드박스가 2년간 1조4000억원의 투자 유치와 2900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24개 규제자유특구에선 73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유치됐고, 고용도 1300여명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규제 법령 정비가 늦어져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들 수요가 많은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 관련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세균 총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호 도구공간 대표, 조민재 캐롯손해보험 상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진영 기자 son@

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했다"면서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한층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정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년간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의 분야에서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45%인 185개는 이미 시장에 출시했거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2년간 벤처캐피탈 등 외부자금이 유망 사업에 투자한 규모도 총 1조4344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고용도 규제자유특구에서만 1255명이 증가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2865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선 148명의 고용이 늘어 GM 철수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집중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총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부산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대전 바이오메디컬 ▲제주 전기차 충전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활용 스마트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련 제도 내실화를 통한 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적극 추진 하되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실증

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 정비가 끝날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규제법령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인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신속 확인 제도 활성화 ▲신청기업 행정부담 완화 ▲실증특례 기간 단련적 운영 ▲기보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교통·재건축 기대감에 '들썩'... 도봉구, 84㎡ 10억 찍어

복합환승센터, GTX-C 등 호재
인근 창동 지난달 10.5억에 거래
재건축 기대에 매물 거둬들이기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 도심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 도봉구 아파트가격이 교통호재와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격이 10억원을 넘겼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0.40% 상승했으며 도봉은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호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 창동역 인근 지역 위주로 0.39% 올랐다.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노원 역시 정비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0.45% 상승했으며 자치구별로는 ▲송파(0.69%) ▲강동(0.66%) ▲



서울 도봉구 아파트가격이 교통호재와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초(0.61%) ▲강남(0.56%) 순으로 올랐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시작해 의정부역을 거쳐 창동역과 청량리역, 삼성역 등에 이어 경기도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10개 정거장 74.8km에 걸쳐 건설하는 철도노선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창동 도시개발구역 내 2지구(1만2894㎡)에 연면적 9만5902㎡,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

로 업무·상업·문화 복합시설과 환승 관련 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계획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예정대로 건립되고 GTX-C노선이 완공되면 이 지역은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창동 주공19단지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겼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0억 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창동 주공 18단지는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말 7억원에 팔렸으며 17단지는 전용면적 50㎡가 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라며 "최근 재건축 바람에 불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주공 19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심사를 제출했으며

17·18단지는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창동 동아출출(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2월 9억99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창동북한산아이파크(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8억 9000만원, 창동 주공3단지(전용면적 84㎡)는 7억원에 팔렸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에는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 등이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고밀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기자 ywj964@

화재 고위험 특수건물, 보험가입 쉬워진다

화재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
숙박업 등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

오는 5월부터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 조회시스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위험률이 높아 가입이 어려웠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

업소 등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화재위험이 큰 특수건물은 보험사가 가입을 꺼려 특수건물 5만 747개 중 약 7%(3625곳)가량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선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보험 회사의 인수 기피등으로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해 불편함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조회시스템으로도 가입이 어려운 특수건물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공동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에 유튜브·OTT 이용률 66% 증가

방통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順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디어 시청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크게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042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029명을 방문 면접해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디어(방송·O

TT)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1%로 나타났다. 이는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2.3%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수치다. 코로나19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스마트폰(52.5%)과 TV(44.6%)로 확인됐다.

특히 OTT 이용률은 66.3%로 전년(52.0%) 보다 14.3%포인트 늘었다. 서비스별로는 유튜브 62.3%, 넷플릭스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TV 4.8%, 아프리카TV 2.6%로 조사됐다. 서비스 이용 기기는 스마트폰이 94.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나인 기자 slkni@